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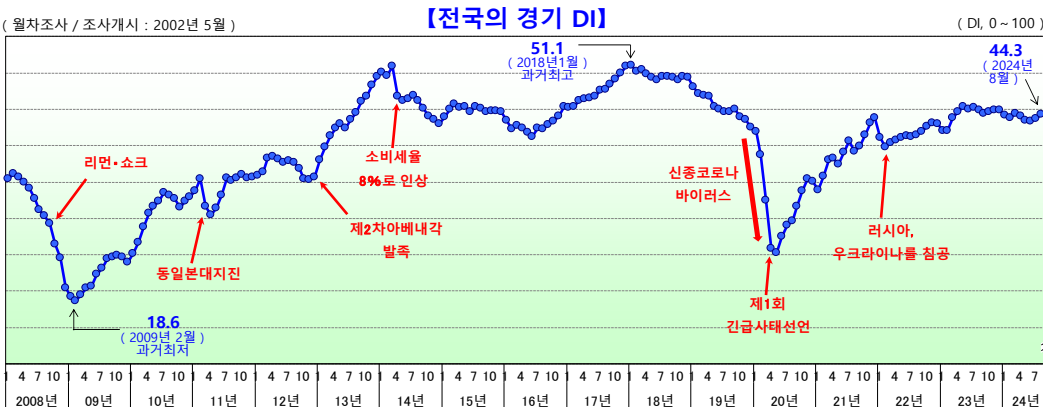
국내경기는 2개월 연속 개선

~ 관광산업과 더불어 반도체 관련 등 제조업이 상승시켜 ~

(조사대상 2만 7,247사, 유효회답 1만 1,414사, 회답률 41.9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의 포인트

- 2024년 8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5포인트 증가한 44.3으로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. 국내경기는 관광산업 및 계절적인 수요가 견인하여 전체 체감경기를 상승시켰다. 향후의 경기는 해외 상황 등 불투명한 요소도 있는 한편 IT관련 투자 등 호재도 많아 내려가지 않고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
- 업계별로는 『제조』 등 10개 업계 중 7개 업계에서 개선되고 악화는 3개 업계였다. 특히 외출 기회 증가 및 무더위, 비축품의 긴급수요 등으로 음식, 식품제조 등 폭넓은 업종으로 호재가 과급하였다.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, 1개 지역이 악화되었다. 중순의 지진발생 및 후반의 태풍 상륙이 있었으나 각지의 관광 관련 및 향토 산업의 상승세가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. 규모별로는 「대기업」이 보합, 「중소기업」과 「소규모기업」은 함께 개선되었다.
-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연휴 시즌의 인파 증가로 인하여 여름축제 등 이벤트 관계를 중심으로 호조인 목소리가 있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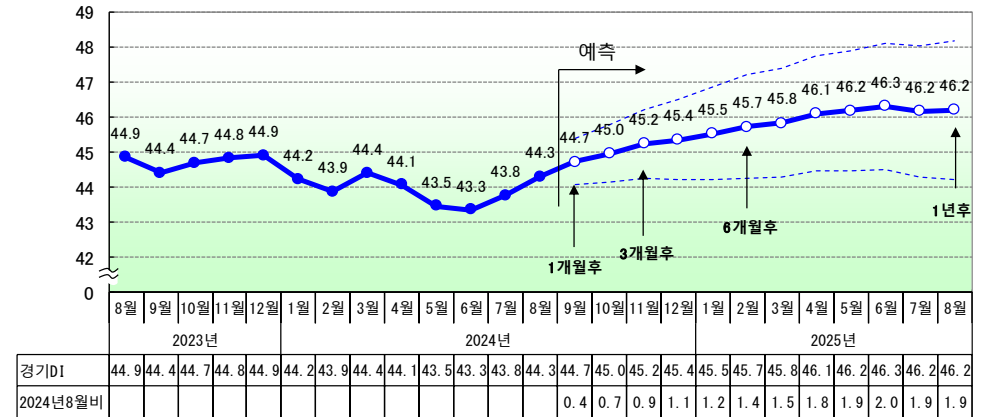
< 2024년 8월의 동향 : 2개월 연속 개선 >

2024년 8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5포인트 증가한 44.3으로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. 국내경기는 관광산업 및 계절적인 수요가 견인하여 전체 체감경기를 상승시켰다.

8월은 전국적으로 계속된 무더위와 지진 및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경제활동이었다. 호조인 인바운드 수요 및 연휴 시즌의 외출 기회 증가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었다. 또한 음료 및 냉과, 카페 등 음식 관련, 열사병 예방 상품, 냉방시설 공사 등 무더위로 인한 수요확대 외에, 자연재해에 대비한 긴급 수요도 보였다. 호조인 반도체와 관련된 설비투자과 함께 가격 전가 확산도 호조였다. 한편 공장의 가동 정지 및 계속된 인력부족, 코스트 부담 증가 등의 마이너스 요인도 있었다.

< 향후의 전망 : 내려가지 않는 추이 >

향후는 실질임금 상승의 계속성 외에 시장금리 및 외국 환율 동향,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행방 등이 주목된다. 인바운드 소비를 포함하는 관광산업 회복, DX 추진 및 그린에너지 정책 외에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및 로봇기술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 게다가 생성형 AI 보급 및 반도체 수요 증가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. 한편 물류 코스트 상승 및 인플레이션 진행, 인력부족, 가계의 절약 정신, 국제적 긴장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. 향후의 경기는 해외 상황 등 불투명한 요소도 있는 한편 호재도 많아 내려가지 않고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



*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. 점선은 예측치의 폭(예측구간)을 나타내고 있다.